八戒 수지…청정 불자로 거듭나다

부산불교聯, 10월 16일~18일 범어사서 '2022 팔관회' 봉행

영유아 · 성인 등 모든 연령 동참
문헌에 따른 전통 수계 의식 재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10월 16일 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일주문 옆 광장 특설무대에서 '2022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신라 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까지 이어온 국가적 차원의 전통불교행사로, 처음에는 호국적인 성격에서 시작되었으나, 고려시대 들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불교의 팔계(八戒)를 하루 낮과 밤 동안 엄격히 지키는 불교의식의 하나였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의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호국사상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확장해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팔관회는 모든 연령을 총망라한 수계의식으로 눈길을 모았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16일 마정수기와 어린이를 위한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이번 마정수기는 지금까지의 팔관회 동안 처음으로 열린 것이며, 계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마정수기를 위해 회장 보운 스님은 자신의 가사를 소가사로 제작해 염주와 함께 영유아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불자로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를 위한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수계법회에는 범어사 교무국장 해륜 스님, 삼광사 교무국장 덕중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대각 스님이 계를 설했으며, 선재동자는 어린이 팔계를 받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불자를 서원했다.

성인을 위한 수계의식은 10월 18일 진행됐으며 내빈 70여 명이 현장에서 수계를 받았고 3000여 명의 수계자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동참해 계를 받았다. 호국영령위령재와 함께 진행된 팔관재계 수계법회에서 수계자들은 전통 고려 복식을 입고 팔관회를 재현해 팔관회의 전통문화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수계법회에서 전계대화상은 회장 보운 스님, 갈마아사리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교수아사리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이 담당했으며, 백고좌 형태로 16증사가 계단을 증명했다. 이번 3화상 16증사는 모든 불교 종단의 스님들이 동참해 화합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부산불교연합회가 10월 16일 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일주문 옆 광장 특설무대에서 '2022 팔관회'를 봉행했다.

10월 17일에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호국기원법회를 봉행했으며,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호국기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호국기원기도 봉독 △봉행사 △축사 △대회사 △축가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됐으며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를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보운 스님은 "팔관회는 역사의 기록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으나 부산불교연합회가 유일하게 팔관회의 역사를 고증하고 재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계법회로서의 여법한 의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불교축제의 장으로서 팔관회를 계승하고 있다"며 "천년 만에 복원된 팔관회가 부산에서 다시 20년이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앞으로도 팔관회의 가치를 전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 발전시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 피우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팔관회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가 빨리 마감되어 국가의 번성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되기를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나가야겠다"며 "더불어 소통의 마음을 통해 화합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비의 정신을 실현할 때 팔관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팔관회는 신라 시대 진흥왕 12년부터 시작했다. 진흥왕은 전몰장병을 위해 팔관법회를 외사(外寺)에 베풀어 7일 동안 행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와 〈신라본기〉에 기록되어있다. 팔관회는 고려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국가비보를 위한 호국법회로 발전됐다. 이후 문헌에 따라 2000년 10월 2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제1회 팔관회가 진행됐으며, 이후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현함으로써 호국사상과 인간성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다.

울주 태화선원, 제1회 태화국화문화축제



울주군 태화선원(주지 명본)이 10월 15일 경내에서 '제1회 태화국화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는 태화선원 주지 명본 스님, 팔공산 갓바위 前 주지 법성 스님, 김미강 태화선원 신도회장, 청정화 백양회 회장, 김자이 자비회 회장, 신혜경 언양시니어 클럽 관장, 양은주 대안공방 원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시예불 △주지 스님 인사말 △망깨 공연단 국악한마당 △치유의 소리(싱잉볼) 순으로 진행됐으며 천 아트 및 기와그림아트 등 특별전시도 이어졌다.

주지 명본 스님은 "가을을 맞아 산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볼거리와 공연을 마련했다"며 "좋은 가을 하늘 아래 국화 향기와 더불어 즐겁고 쉼이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장안사 도로명 주소 '장안사로 108'로

환경수호 동참 지역민 염원으로
10월 11일, 도로명 주소변경 확정
11월 4~13일 장안사 국화축제


천년고찰 장안사 주소명이 '장안로 482'에서 '장안사로(長安寺路) 108'로 변경됐다. 사진은 장안사 전경.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무관)의 도로명 주소가 '장안로 482'에서 '장안사로(長安寺路) 108'로 변경됐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10월 19일 장안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안사 도로명 주소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안사의 도로명 주소 변경은 장안읍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섰고, 10월 11일 도로명 주소변경이 확정됐다. 특히 변경된 주소에 사찰명과 함께 불교적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숫자 '108'이 들어 있어 그 의미가 또한 적지 않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은 지난해 2021년 6월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계획으로 몸살을 앓았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사업계획이 알려진 시점부터 단식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으로 기장군 산업폐기물 반대 장안읍 대책위원회와 함께 매립장 설치 사업 철회에 앞장섰다. 이후 2021년 10월 12일 산업폐기물 매립장 민간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철회했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 계획은 무산됐다. 이번 도로명 변경에 지역주민이 직접 나선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철회 성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관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장안사의 도로명 주소변경은 기장을 청정지역으로 수호하겠다는 기장 군민들의 의지가 담겼으며, 기장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장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사찰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극히 힘든 일이다. 이번 도로명 변경을 위해 종교가 다른 지역주민들도 함께 뜻을 내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민들의 청정 환경 수호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알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안사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장안사 국화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민을 위한 상생의 축제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국화분재 작품 100여 점과 국화 화분 300여 개가 도량을 장엄하며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다. 개막식은 11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주지 무관 스님을 비롯해 정종복 기장 군수 등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마음치유 여행 프로젝트

치유 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
힐링토크콘서트 '마음溫(온)' 개최
템플스테이 10월 8일~12월 진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템플스테이 사무국은 '쉼, 그리고 어루만짐' 마음치유여행을 주제로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템플스테이 주제를 위해 통도사는 순례와 치유를 테마로 쉼을 제공하며, 사회 주요 명사들을 초대해 힐링토크콘서트 '마음溫(온)'을 개최한다.

△치유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

통도사 치유순례길 '걷고, 묻고, 답하다'는 무풍한송로를 직접 걷고 성보박물관 및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산내 암자를 순례하며 암자마다 가지고 있는 숨은 이야기를 접하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 참가자들은 직접 차를 따고 덖고, 마시는 차밭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오감을 바르게 일깨우며 참 나를 찾아가는 오감 체험 명상 프로그램 및 산사 힐링 콘서트도 선보인다.

템플스테이 참가대상자는 전역자, 대학휴학생, 육아휴직자, 퇴직자, 코로나 의료진, 다문화가족(아동 포함), 봉사단체로 제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8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박 2일(토, 일)과 2박 3일(금, 토, 일) 중 선택할 수 있다.

△힐링토크 콘서트 '마음.溫(온)'

명사초청 힐링토크콘서트 '마음.溫(온)'은 종교계의 명사를 초청해 강의와 토크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토크콘서트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며 10월 19일 양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콘서트가 진행됐다. 첫 콘서트에서는 문광 스님이 '힘 빼고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문광 스님은 2001년 해인사 원당암에서 출가해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에 재직 중이다. 힐링토크 콘서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예약은 홈페이지 (http://templestay.tongdosa.or.kr)에서 가능하다. 055-384-708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장학금 전달

10월 13일, 장학금 6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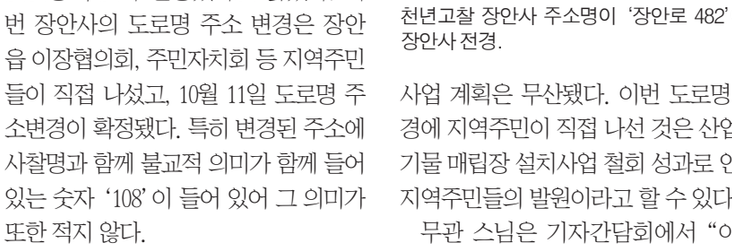


인재불사 도량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가 10월 13일 경내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선광사는 인근 대덕여고 학생 20명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전달식에는 주지 성문 스님, 장제원 국회의원, 이동형 대덕여고 교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 이종구 사상구의회 부회장, 심인택 사상구연합회 신도회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30여 명이 동참했다.

성문 스님은 "선광사를 창건한 지 21년이 되었다. 인재불사는 선광사 불사 전부터 시작해 올해 22년을 맞았다"며 "다이아몬드도 원석일 때는 가치가 없고 잘 다듬어야 가치가 있는 법이다. 여러분들은 아직 채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이다. 본인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와 같은 1등 인재가 되시라"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녹색복지관 선포



녹색복지마을 구축 및 네트워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이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복지마을 구축을 위해 부산불교환경연대 및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협약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1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와 협약 및 현판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어 부산진구청,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경실련,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진구 등 지역 사회시민단체와 네트워크 협약 및 녹색복지관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 '녹색 복지 마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으로 의미가 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류강렬 관장은 "우리 복지관의 녹색복지관 선포가 시작점이 되어 부산진구를 넘어 부산시 전체에 녹색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력을 통해 신바람 나는 친환경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녹색복지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EM만들기 및 찾아가는 급식소, 재활용 활용 거리 등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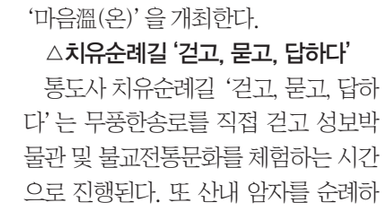
해인종, 제5회 법계고시 회향법회 봉행

10월 15일, 총무원 낙은사 법당서

사단법인 대한불교해인종(종정 혜지 대종사, 이하 해인종)이 10월 15일 총무원 낙은사 법당에서 법계고시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종의 법계고시는 창종 3주년 되던 2002년에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를 맞아 20년 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법계고시는 9월 14일 원서 마감 후 9월 15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연구보고서는 10월 5일 접수 마감 후 10월 14일 심사해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해인종은 특별심의를 통해 원경 대호 총무원장을 대종사로 추대했으며 법랍 30년 이상의 1급 종사에 대호 스님(약천정사 주지), 승공 스님(칠보사 주지, 비구니), 보원 스님(보원사 주지, 비구니) 3명과 2급 종덕 7명, 3급 대덕 4명, 4급 종덕 1명, 5급 대선 1명 등 총 16명의 승려에게 법계증서를 수여했다. 법사로는 1급 수혜사 2명, 2급 사혜사 1명, 3급 문혜사 1명이 품서되었다. 그리고 법봉 스님(사천 천황사주지)의 〈석가모니 일대기 연구〉 연구보고서가 장원으로 채택됐다.



종정 혜지 대종사는 법문으로 '관세음보살' 찬불가를 부르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원력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되겠다는 서원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사상구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은 "오늘 품서 받으신 스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중생에게 이익되는 보살행을 하시는 큰스님이 되시기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한편, 낙은사는 법당 불사에 기여한 김인출 지구건설 부사장, 이연수 금화불교미술원 대표(탱화), 박돌아 부산경찰청 불자에게 공덕패를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생명나눔 부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부산 불교계 최초로…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비극"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부산 불교계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10월 13일 홍법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연명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은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운다. 인생의 마지막을 존엄성을 간직한 채 맞이하는 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의의를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임종을 맞이할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심산 스님은 "제도의 필요성이 있지만 유교적 훈습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홍보를 통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 부산에 있는 불교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불교의 사명을 생각할 때 무척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상담을 받아 내용을 숙지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단 철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등록 후 확인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혹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국 불교계 가운데서는 여성개발원과 울산 정토마을 관자재요양병원에 이어 3번째이며 부산 불교계에서는 최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